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 않으며 지혜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청신 차려 껴어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생명의
길로 가기만 느낍니다.



청신 차려 껴어서 신자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죄합니다.

나는 염치없이 살아있다

신윤식

언제 이만큼 살아왔는지
쏟아같은 세월 속에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글을 쓴답시며
자판을 두드린 지 근 이십년인데
썼다고 할 만한 글도 없다
목사라는 자리에 나를 얹어 놓고
목회라는 편리한 습관에 젖어
구석에 나만의 동지를 들고
혼자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아왔다.
햇빛 아래 널브러진 욕망만 촌촌하다.
그것들은 침묵하는 내 그림자와 친하다.
내 가는 곳에 언제나 그것들이 있다.
나와 똑 같이 움직인다.
하지만 공허하다 숨길 수 없이
이런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염치없이 살아있다.
그런데 우습게도
살아있음을 당연히 여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10.30

발행호수 제19권 40호

예 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는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한 두 번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거듭 반복되는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로 다가올 것이라

는 위기감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반응이 등장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 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흥계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명절인 유월절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기에 예수를 죽이면 혹 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을 염려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의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예수님은 유월절이 지나서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이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절에서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린양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참된 유월절 어린양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더 이상 사망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그러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주일오전설교
마 26:1-13

죽으심에 대한 반응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고 또 하나는 은 삼십에 예수님을 넘겨준 가롯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의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라고 언급되어 있고, 향유 역시 나드 향유로써 제자 가롯 유다의 말에 의하면 삼백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삼백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일 년 품삯에 해당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로는 약 이천만원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버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여인을 나무랍니다. 이유는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림으로써 허비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제자들로 언급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가롯 유다가 그 같은 분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분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해도 향유는 땅에 흘러 내려 다시는 못쓰게 됩니다.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는 것보다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13절)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미리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같은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고 장례를 위한 것으로 여기

고 계시기 때문에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인의 행동과 제자들의 말대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라면 우리는 신앙을 윤리적 시각에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윤리를 기준 한다면 제자들의 말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사랑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광신일 뿐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향유를 부어서 허비해 버리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니까 분명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여 가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더욱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는 생각에 의한 판단일 뿐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이 같은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좀 더 가치 있는 행동을 하여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할 자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참으로 존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존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나타내는 여인의 행동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여자가 행한 일을 단순히 시신에 향유를 발라 장례하는 유대인의 풍습을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즉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시신에 향유를 붓는 장례 절차를 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되어야 할 여자가 행한 일은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일일까요?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의 죽음에 죄인된 우리에게 새롭게 사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제자들의 눈에는 여인의 행동이 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낭비해 버리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죽음, 즉 십자가 사건에 자신의 존재 전부를 맡기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인의 귀한 봉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귀한 봉사를 낭비로만 여기면서 분개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의 봉사를 이해하지 못한 분노의 결과를 유다와 연결하여 말하는 것이 14-16절의 내용입니다.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고 말하고 대제사장들은 은 삼십을 달아줍니다. 출 21: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은 삼십을 달아줌으로써 예수님을 종의 값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돈을 받음으로써 그 역시 예수님을 그들처럼 값없는 존재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돈이 목적이었다면 대제사장들에게 좀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흥정을 했을 것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기고자 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의 값에 지나지 않는 은 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돈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면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제자인 자신들은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 버리시면 그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월은 결국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환영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돈을 받고 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제자들 역시 유다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유다가 은 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고자 한 것도 유다가 원하는 아무 유익도 주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 버리는 예수는 종처럼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배경으로 하는 여인과 다른 반응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신의 전부를 맡길 정도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한 사람은 종의 값과 같은 가치 없는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과 극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 중심에는 '자신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육신의 유익을 근거로 해서 바라보느냐'라는 중대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가롯 유다만 예수님을 종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복과는 상관없이 다만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가시고 우리 또한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는 예수에 대해서는 발끈하는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

현 대 교회 내에서 직분은 그 성경적 의미를 상실 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직분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직분자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충성과 봉사만을 요구할

주일오우설교

엨 4:11-12

교회와 직분

(교회11강 10.23일 설교)

뿐입니다. 그것도 직분자를 허울뿐인 신앙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묶어 놓은 채 가정 일보다는 교회 일을 우선하라 하고, 교회 일에 시달려 몸이 피곤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피곤치 않게 해주시며 복을 받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허황된 말로 교인들을 현혹하여 목사의 말에 장단 맞춰 춤추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요구하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일 것이고,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돈을 필요로 할 때는 집을 팔아서라도 현금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고, 목사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직분을 둘러싼 현대 교회의 파행은 일찌감치 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나 권사, 안수 집사 등의 직분을 맡을 때 돈이 없다는 안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을 맡으면서 교회에 일정 액수의 현금을 하거나 고가의 물품을 헌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아예 당연한 절차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직분을 맡는 자에게 공공연하게 현금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직분을 맡는 자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그렇다면 직분을 맡는 자가 교회에 현금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으면서 교회에 현금을 한다면 그것은 직분을 자신의 명예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당신에게 장로라는, 또는 집사라는 명예를 주니까 그 댓가로 돈을 내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직분에 돈이 개입됨으로써 교회가 때로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하다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직분을 사고파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이 명칭은 직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에 세움 받은 이 직분의 의미는 성도의 온전함을 위한 방향으로 향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골 1: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 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을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세우신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 일까요? 이것은 유대교 신앙이지 복음 안에서의 신앙은 아닙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의미는 28절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웁니다. 이것이 말씀의 완성입니다. 사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도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 받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용서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만이 죄에서 건짐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렇게 예수님의 용서의 세계를 누리게 하는 것이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은 이유이고, 이것이 직분의 의미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이 일을 위해 일꾼으로 세움 받았음을 알 았고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전하여 권하고,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모든 소원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목사의 일로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목사 라는 직책만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따로 구분하여 언급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부름 받은 자리라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모두가 말씀의 도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든 직분은 앞서 말한 대로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 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름이나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 도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그의 능력이나 자격을 보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교회에서 직분자는 사회적인 위치나 능력 등이 작용하여 세워지지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을 볼 때 사회적인 위치와 능력이라는 기준에서 자유 롭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세움 받은 직분자의 자리에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직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 일까요? 저는 이것을 담전 3장에 등장하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담전 3:2-4절과 8,9절에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보면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사실 어디에서도 이러한 수준의 직분자를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이런 수준의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담전 1:12절에 보면 사도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가 말하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놓고 본다면 사도는 자신을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과수라고 일컫습니다. 결국 죄인 중에 과수에 지나지 않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뜻인데 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것처럼 완벽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담전 1: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 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의 과수인 자신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음을 말하면서, 긍휼을 입은 까닭을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즉 긍휼의 본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긍휼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직분의 의미를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의 본을 보임으로써 긍휼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완벽의 수준으로 말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직분이 주어진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직분이란 자신을 보여주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기에 성도를 위한 봉사의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서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직분자로서의 봉사의 일이라는 것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성과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모든 성도는 교회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의 도구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긍휼이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일을 위한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일로 인한 분란은 오히려 직분의 의미에서 이탈된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은 교회가 아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 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9절)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자신들이 헛된 것을 좇았음을 보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 선지자를 등장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싸움에 개입된 선지자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자신이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선지자라면 어떤 형편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됨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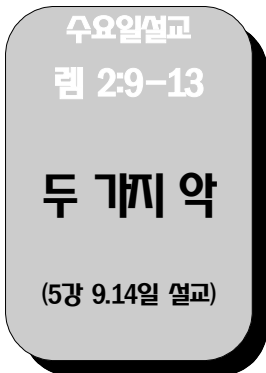
못됨을 드러내어서 그들이 죄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선지자에게 나오지 않고서는 자기의 잘못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긴 채 계속 죄의 길을 가게 될 뿐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아보고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어떤 부를 이루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말씀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지적받기 보다는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는 거부하고 배척을 했던 것이고, 반대로 평강만을 외치는 선지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 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 버린 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로 환심을 사고자 했을 뿐이었고 성경은 이들을 거짓선지자로 일컫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상은 지금의 기독교의 실상과는 다르지 않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고 기독교인이 많고 목사가 많이 배출되어 있다고 해서 기독교가 부흥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가 어떠한가를 보게 되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고 보게 하는 말씀 보다는 평강과 복을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기 원하고 즐겨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죄를 외쳤으나 듣지를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배척했던 당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이 보게 하는 우리의 악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함으로써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폭포수 같은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으로 진리의 길을 가는 신자의 온전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 나라” 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누가 악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야 하나님을 버렸다면 악이라고 하겠지만 세상은 단지 종교를 선택하고 신을 선택하는 것을 자유의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을 악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세상이 웃을 일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웅덩이를 판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파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힘으로 웅덩이를 파지 않고 웅덩이를 얻고자 한다면 도적의 심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같은 자세를 악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자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선지자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악을 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악을 행했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운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고 있었고 할례 등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생수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악을 행했다는 말을 수긍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마르지 않는 신앙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세상의 것에 대해 끝없이 목말라 했습니다. 이방나라의 강함이 부러웠고 그들처럼 강한 힘을 얻기 위해 우상을 좇은 것입니다. 어린양의 피로써 장자 재앙에서 죽음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었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평만 불만만 가득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주하게 된 것은 그들의 힘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그들의 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인도했음을 증거하는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것이 이스라엘다운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세상

의 헛된 것들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면 세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우상을 좇은 것입니다. 이것이 11절에서 말한 대로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한 채 죄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내는 능력이 되는 의고, 사망에 처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살리는 하늘의 의를 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의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을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것으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나”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애굽과 앗수르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힘의 배경으로 삼고 자신들도 힘 있는 자가 되는 길을 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힘에 목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의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의 힘으로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은 결국 죄의 삯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총으로 인해 예수님의 세계에서 의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세상의 무엇보다 의의 세계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에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자비하심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91장

교 독 : 80(고후4장)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454장

성 경 : 마 26:1-13

말 씬 : 죽으심에 대한 반응(157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92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6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42장

기 도 : 박철현 집사

찬 송 : 300장

성 경 : 행 2:42-47

말 씬 : 교회의 정체성(교회12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08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8강)

■ 교회소식 ■

1. 11월 3일(목) 오전 11시에 동부노회 권사회 모임이 은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성희 장로 오후 - 유오자 집사

성경에서 이탈하면

어느 불교학자가 강연에서 ‘오늘의 한국 불교는 경전 불교가 아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새벽마다 목탁을 두드리며 경전을 암송하고 부처의 대자대비의 길을 표방하는 불교가 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경전에 담겨 있는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로 떨어진 현실에 대한 지탄의 말이다.

종교의 중심은 경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전으로 인해서 종교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경전이 표방하고 있는 그 본질에서 이탈하게 되면 불교는 불교가 아니고 천주교도 천주교가 아니며 기독교도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된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라는 동일한 길을 가게 될 뿐이다.

물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그 본질 자체가 다르지만 오늘날 기독교 역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 이탈함으로써 진리를 바르게 증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저기서 부흥회를 열고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심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바르게 해석하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참된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모든 관심을 두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시 121:1,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에 대해 성경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답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 구원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한분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는 구원의 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으로 각색하여 가르침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에서 이탈하게 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다. 마치 금광 깊숙이 매장되어 있는 금광맥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깊숙이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의 세계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발견하여 그것을 하나하나 캐내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이처럼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면서 점차 선명하고 확고하게 드러나는 구원의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 기독교에 교회로서의 참된 본질이 간직되어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물음에 대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라는 답을 분명히 제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구원의 도움이시라는 믿음의 길로 감으로써 구원의 답을 가진 교회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성경에서 이탈함으로써 돈이 곧 답이라는 세상의 길에 서 있는 것이다.